

철도파업에 따른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

□ 9.14~18일 간 철도노조의 일방적인 파업으로 인해, 국민 불편은 물론 철도수송량 감소*로 산업계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

* 화물열차 운행현황(9.14일 기준) : 일 40회, 2.2만톤(평시 일 160회, 8.3만톤)

○ 정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예고 직후부터 운송업체에게 열차 운행계획, 사전수송방안 및 육송운송 전환 등을 안내하였으며,

○ 현재, 파업 진행으로 인한 산업계의 혼란 없도록 운송업체와의 핫라인을 구축하여 운행계획 변동 안내, 업체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* 등을 실시하고, 파업 종료 시 일시적으로 수송력을 증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.

* (조치사례) 업체 건의(긴급수출, 시멘트 재고관리)로 열차 운행구간 변경 완료(9.14~15, 4건) 등

□ 국토교통부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,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,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철도국 철도운영과	책임자	과장	김민태 (044-201-3970)
		담당자	사무관	권인혁 (044-201-3971)